



## T0 | 문화마당



문화비축기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장입니다. 대규모 공연과 축제, 시장 등 매번 다른 얼굴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 T1 | 파빌리온



석유비축기지 시절에 휘발유를 보관했던 탱크입니다. 탱크를 해체하고 유리로 된 벽체와 지붕을 없앴습니다. 문화 통로를 지나면, 유리 파빌리온 공간에 들어섭니다. 이곳에서는 40여 년간 탱크를 둘러싸고 있던 매봉산의 암반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과 천장이 둘러싸고 있어 계절과 날씨, 시간에 따라 이루는 분위기가 매번 다릅니다. 전시와 워크숍, 공연을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T2 |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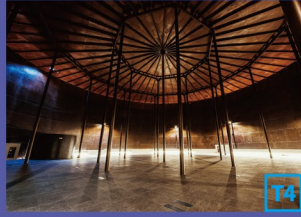


경유를 보관하던 탱크가 야외무대와 공연장이 됐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하는 야트막한 경사로를 따라 걸으면 자연스레 탱크의 상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탱크를 해체하며 외형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매봉산 암벽과 탱크를 감싸던 콘크리트 웅벽이 자연스러운 소리의 울림을 이루고 하늘과 바람, 산 등 자연이 공연의 일부가 됩니다. 탱크의 하부는 실내 공연장으로 마련했습니다.



## T3 | 탱크원형

석유비축 당시의 탱크 원형을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덕분에 석유비축기지가 세워진 역사적 배경과 당시 경제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줄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 T4 | 복합문화공간

탱크 내부를 그대로 살린 공간입니다. 등유를 보관하던 이 탱크는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철제 외벽과 파이프가 석유로 가득 찼던 탱크의 옛 모습을 그려지게 합니다. 탱크와 외부 웅벽, 붉은색 소화액관을 따라 걷다 보면 탱크의 거대함을 문득 실감할 수 있습니다.



## T5 | 이야기관



전시실로 구성된 이곳에는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동그런 전시실을 한 바퀴 돌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크고 작은 이야기를 차곡차곡 새길 수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시절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헬멧과 작업복 등을 전시해 더욱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곳에서는 탱크의 안과 밖, 콘크리트 웅벽, 암반, 절개지를 온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 T6 | 커뮤니티센터



T1과 T2를 해체하며 나온 철판을 활용해 새로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운영사무실과 창의랩,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2층에 올라서면 하늘을 동그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옥상마루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생태도서관 '에코 라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17년, 월드컵공원 인근에 오랜 시간 베일에 싸여있던 '마포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가 되어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마포석유비축기지는 1급 보안 시설로서, 41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1973년, 우리나라는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1978년, 매봉산 인근에 석유비축기지를 세웠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인 탱크 5개에, 당시 서울 시민들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6,907만 리터의 석유를 보관했습니다. 이후 2002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며, 인근 500m 이내에 위치한 석유비축기지가 위험시설로 분류됩니다. 탱크에 저장된 석유를 이전하고 2000년 12월,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는 폐산업 시설이 된 석유비축기지의 부지를 활용하고자 시민·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후 국제 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바탕으로, 설계자문위원회와 시민 기획단인 탐험단을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설이 원래 지닌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2015년 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석유비축기지는 생태문화공원이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당시 석유를 보관하던 탱크들은 석유 대신 매일 색다른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탱크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5개의 탱크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해체된 탱크의 철판을 활용해 만들어진 T6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비어있던 야외 공간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 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지에 남아있던 수림은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매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서는 종종 산토끼와 청설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석유와 건설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던 공간이 친환경과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전시, 공연, 워크숍 등 색다른 문화 행사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열립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협치시민, 협력시민, 활동시민으로서 생태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문화비축기지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 생산의 공간이자 전환 도시의 거점으로서 이곳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 석유에서 문화로





안내지도 & 이용가이드

해설사와 함께하는 시민 투어

화~토요일 14:00 | 16:00 (1시간 소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사이트(yeyak.seoul.go.kr)에 '문화비축기지' 검색 후 희망 날짜에 신청 바랍니다.

오디오 가이드

대여 가능 시간 10:00~17:00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기기는 안내동에서 대여 가능하며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해 주세요.



유모차와 휠체어, 우산은 안내동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금연 공원입니다.



주차 안내

소형 10분당 300원, 중형 10분당 600원  
장애인 주차 2면, 전기차 충전 1면  
24시간 운영(요금 과금 시간 09:00~22:00)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버스 710, 571, 6715, 7019, 7715, 9711A  
733, 271, 6715, 7011, 7013A, 7013B, 7019, 7715, 8777, 마포08  
월드컵공원, 문화비축기지 정류장 하차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문화비축기지